

『醫方類聚』의 引用書에 관한 연구(1)

崔桓壽* 申舜植*

1. 서론

『醫方類聚』는 1445년에 세종의 명으로 모든 의방서를 수집, 분류하여 365권으로 완성한 것을 1451년부터 1464년까지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교정, 정리를 하고 판각작업을 거쳐 1477년에 30권이 간행된 의서다.¹⁾ 『의방유취』는 모든 의방서를 수집하고 이를 분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용서의 양은 대단히 많은데, 대략 인용서가 150여종이라고 보고 있다.²⁾

지금까지 『醫方類聚』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醫方類聚』의 研究에 基礎資料가 되는 引用書의 研究는 거의 없다. 다만 『의방유취』 인용서의 선행연구는 三木榮과 金斗鍾이 단지 『의방유취』 「引用諸書」를 발췌하고 간략하게 『의방유취』 전체를 설명하는 중에 포함시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연구가 미비하게 된 이유는 『의방유취』 자체 분량과 인용서의 양이 방대하고, 또한 정확하게 고증할 수 없는 인용서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의방유취』 「引用諸書」에는 인용서 목록만을 나열하고 있다. 그래서 本考에서는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우선 제목으로 구성된 '引用書名'만을 인용서로 삼고 재인용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먼저 『의방유취』 「인용제서」와 비교를 하였다. 그리고 引用書名을 고증하고 각 引用書의 著者, 著述時期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각 引用書의 引用회수를 조사하여 『醫方類聚』의 特徵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방유취』의 引用書를 時代順序로 배열했다는 점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2. 『醫方類聚』 「引用諸書」 目錄과의 비교

『의방유취』는 각권마다 '의방유취○○○'·'○○문'·'인용서명'·'내용'·'인용서명'·'내용'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으로 표기된 인용서는 총 142권인데, 引用書名을 가나다순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簡奇方』·『簡要濟衆方』·『簡易方』·『居家必用』·『經驗良方』·『經驗秘方』·『管見大全良方』·『臞仙活人心』·『勤善書』·『金匱鉤玄』·『金匱方』·『金丹大成』·『急救仙方』·『蘭室秘藏』·『南北經驗方』·『南陽活人書』·『斷病提綱』·『澹寮方』·『澹軒方』·『大和本草』·『東垣內外傷辨』·『東垣辨惑』·『東垣試效方』·『痘疹方』·『得效方』·『得效方七十二證方』·『無求子活人書』·『拔粹方』·『寶丹要訣』·『保童秘要』·『保命集類要』·『福壽論』·『婦人大全良方』·『備預百要方』·『脾胃論』·『秘傳外科』·『秘傳外科方』·『事林

* 한국한의학연구원 의사문헌연구실

1) 金信根. 『韓醫藥書攷』. 初版3刷.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85-91.

2) 盛增秀(『從校點『醫方類聚』說起』. 『上海中醫藥雜誌』. 1984: 6: 34)는 150여종의 중국 의서를 인용하였다고 하였고, 金斗鍾(『韓國醫學史』. 서울: 探究堂, 1979: 223-225.)은 153부의 인용의서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어디까지를 재인용서로 보아야 할지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廣記·『四時纂要』·『山居四要』·『產寶』·『三法六門』·『三元延壽書』·『三因方』·『傷寒論注解』·『傷寒類書』·『傷寒明理論』·『傷寒發微論』·『傷寒百問歌』·『傷寒百證歌』·『傷寒心要論』·『傷寒心要餘論』·『傷寒醫鑑』·『傷寒指掌圖』·『傷寒直格』·『傷寒活人書』·『傷寒活人書括』·『徐氏胎產方』·『瑞竹堂方』·『宣明論』·『仙傳濟陰方』·『省翁活幼口議』·『聖濟總錄』·『聖惠方』·『巢氏病源』·『小兒藥證』·『小兒藥證直訣』·『瑣碎錄』·『壽域神方』·『修月魯般經』·『修月魯般經後錄』·『袖珍方』·『修真秘訣』·『壽親養老書』·『施圓端效方』·『是齋醫方』·『食醫心鑒』·『神巧萬全方』·『神隱』·『神效名方』·『新效方』·『十形三寮』·『御藥院方』·『御醫撮要』·『嚴氏濟生方』·『嚴氏濟生續方』·『延壽書』·『烟霞聖效方』·『永類鈴方』·『吳氏集驗方』·『五藏論』·『五臟六腑圖』·『玉機微義』·『王氏易簡方』·『王氏集驗方』·『王岳產書』·『外科精要』·『外科精義』·『外科集驗方』·『龍樹菩薩』·『龍樹菩薩眼論』·『運化玄樞』·『元戎拾遺』·『衛生寶鑑』·『衛生十全方』·『衛生易簡方』·『儒門事親』·『陰證略例』·『醫墨元戎』·『醫林方』·『醫方大成』·『醫方集成』·『易簡方』·『理傷續斷方』·『雜記九門』·『助道方』·『朱氏集驗方』·『肘後方』·『增注和劑』·『證治提綱』·『直指方』·『直指小兒方』·『陳氏小兒痘疹方』·『瘡科精義』·『瘡科通玄論』·『瘡疹方』·『千金方』·『千金月令』·『千金翼方』·『川玉集』·『追癆方』·『追癆仙方』·『治法雜論』·『治病百法』·『胎產救急方』·『通眞子傷寒括要』·『通眞子傷寒括要詩』·『必用全書』·『必用之書』·『海上仙方』·『和劑局方』·『和劑指南』

위의 引用書는 대부분이 醫書이고 일부 道教의 修鍊書와 佛敎에 관련된 책들이다.

『의방유취』 引用諸書를 金斗鍾³⁾과 三木榮⁴⁾이 재인용하였을 뿐, 인용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 우선 『의방유취』 인용제서와 본고의 인용서 목록과 비교하여 각각에만 기록된 인용서를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의방유취』 引用諸書와 本考 引用書의 비교

비교할 인용	인용서명
① 『의방유취』 인용제서	『黃帝內經素問』, 『靈樞』, 『遺篇』, 『明堂灸經』, 『鍼經』, 『鍼灸經』, 『難經』, 『難經本義』, 『傷寒論』, 『王叔和脈訣』, 『王氏脈經』, 『銅人經』, 『資生經』, 『玉函經』, 『黎居士決脈精要』, 『直指脈訣』, 『李晞范脈訣』, 『素問玄機原病式』, 『湯液本草』, 『子午流注』, 『鍼經指南』, 『玉龍歌』, 『眼科龍木總論』, 『醫經瀾洄集』, 『格致餘論』, 『局方發揮』, 『十四經發揮』, 『纂圖脈訣』, 『鍼灸廣愛書括』, 『醫經小學』, 『小學醫經』(31권)
② 본고의 인용서	『東垣辨惑』, 『得效方七十二證方』, 『保命集類要』, 『秘傳外科』, 『三元延壽書』, 『傷寒發微論』, 『傷寒心要論』, 『傷寒心要餘論』, 『傷寒醫鑑』, 『傷寒活人書括』, 『龍樹菩薩』, 『元戎拾遺』, 『陰證略例』, 『醫墨元戎』, 『增注和劑』, 『證治提綱』, 『陳氏小兒痘疹方』, 『追癆仙方』, 『通眞子傷寒括要詩』, 『和劑指南』(20권)

표 1에서 ①에 관해서는 『의방유취』 편찬당시 편집자들이 이 31권의 引用書에 대해서 再引用書로 보았는지, 아니면 실제 『의방유취』에 편집은 되지 않았지만 편찬과정에서 참고서로 이용하였는지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醫方類聚』 권1중 일부분을 발췌하여 재인용서를 살펴보면 여기에 나오는 재인용된 인용서는 모두 누락되어 있다. 예를 들어 『簡易方』, 『男女動靜說』에 『淸淨經』, 『五常大論』에

3) 金斗鍾. 위의 책, 223-224.

4)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3; 131.

『黃庭經』, 『儒門事親』, 『偶有所遇厥疾獲瘳記』에 『圖經』과 같은 것이다. 이를 근거로 미루어 보면, ①의 인용서들은 『의방유취』 편찬자들이 편찬과정에서 참고한 서적일 것으로 추측된다.

②의 인용서명중에 『東垣辨惑』·『得效方七十二證方』·『秘傳外科』·『三元延壽書』·『龍崗菩薩』·『元戎拾遺』·『增注和劑』·『證治提綱』·『和劑指南』등은 인용서 명칭의 혼용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이외의 인용서들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醫方類聚』 引用書 名稱의 문제

3.1. 『儒門事親』의 7종 引用書

『儒門事親』은 張從正의 著述인데, 본래는 單行本(이후로는 單行本『儒門事親』이라고 칭함)으로 나왔으나 자신이 著述한 다른 醫書 7종을 『儒門事親』 1卷(이후 叢書『儒門事親』이라 칭함)으로 합쳤는데, 이 叢書『儒門事親』이 지금 볼 수 있는 책이다. 그런데 『醫方類聚』는 『儒門事親』내에 합쳐진 8종 의서중 7종 醫書を 인용서명으로 인용하고 또 1종은 다른 한 서적의 「篇名」으로 인용하고 있다.⁵⁾ 『中醫文獻學』⁶⁾을 中心으로 현재 우리들이 볼 수 있는 叢書『儒門事親』(15권)⁷⁾과 비교하였다.

표 2. 『儒門事親』과 『醫方類聚』의 8종 引用書와의 比較

引用書	『中醫文獻學』	『儒門事親』
『儒門事親』	3권. 單行本の 著書로서, 모두 張從正 자신의 醫論과 醫案 30篇을 수록	권1, 2, 3에 각각 10편씩으로 모두 30편.
『治病百法』	2권. 각종 보편적인 疾病 100종의 證治를 기록	권4, 5에 각각 50개 질병으로 모두 100종 질병 ※ 권14중 「扁鵲華陀察聲色定死生訣要」·「診百病死生訣」
『十形三察』	3권. 張氏의 醫安. 十形은 10종(실제로는 11종)의 病因-風·暑·火·熱·濕·燥·寒·內傷·外傷·內積·外積-이고 三療는 汗·吐·下 3法을 가르침	권6은 風·暑·火·熱·濕의 病因 권7은 燥·寒·內傷·外傷의 病因 권8은 內積·外積의 病因
『雜記九門』	1권. 醫話を 著述	권9에 18개의 작은 항목이 있음 ※ 권13, 권14의 「病機」-「五苦六辛」
『撮要圖』	1권. 運氣를 論述(圖表가 있다)	권10에 「撮要圖」라는 작은항목을 포함해 모두 44개의 작은항목이 있음
『治法雜論』	1권. 모두 15篇의 醫論이 있다.	권11
『三法六門』	1권. 醫方을 拔萃하여 수록. 汗·吐·下(三法)와 風·暑·濕·火·燥(六門) 등의 다른 治療原則으로 분류	권12
『世傳神效名方』	1권. 張從正이 수집한 經驗方을 선별하여 編輯함	권15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儒門事親』·『治病百法』·『十形三察』·『雜記九門』·『治法雜論』·『三法六門』·『世傳神效名方』은 叢書『儒門事親』의 편명으로 흡수되었으나, 원래는 단행본이었기 때문에 인용서명의 하나로 취급하였다.

5) 『撮要圖』는 『醫方類聚』에서는 『雜記九門』의 「篇名」으로 인용되었다.

6) 馬繼興 著. 『中醫文獻學』. 1次印刷.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87.

7) 張子和. 『儒門事親』. 台北: 旋風出版社, 1978.

3.2. 이름이 類似한 引用書의 比較

『醫方類聚』의 引用書名을 살펴보면 이름이 동일한 책으로 의심되는 것이 있으니, 『東垣內外傷辨』-『東垣辨惑』, 『和劑局方』-『和劑指南』-『增注和劑』, 『醫壘元戎』-『元戎拾遺』⁸⁾ 등이다. 『醫方類聚』에서 引用書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中國醫學大系』내에 수록된 『內外傷辨惑論』·『醫壘元戎』·『和劑局方』 3종 醫書(아래에는 각각 原本『冊名』이라고 표기한다)의 내용을 비교하여 『醫方類聚』에서 문헌을 인용할 때 본래의 명칭만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아보았다.

『醫方類聚』 卷101 「脾胃門」3 『東垣辨惑』의 “「臨病制方」：至眞要論云：濕淫所勝，治以苦溫，佐以甘辛，以汗爲故，而止以淡泄之，得其法者，分輕重而制方。……”⁹⁾

原本『內外傷辨惑論』 卷下의 “臨病制方；至眞要論云：濕淫所勝，治以苦溫，佐以甘辛，以汗爲度，而止以淡泄之，得其法者，分輕重而制方。……”¹⁰⁾

과 비교하면 『醫方類聚』의 『東垣辨惑』은 『內外傷辨惑論』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醫方類聚』 卷99 「脾胃門」1 『東垣內外傷辨』의 “「辨陰證陽證」；曰甚哉，陰陽之證，不可不詳也。遍觀內經中所說，變化百病，其源皆由喜怒過度，飲食失節，寒溫不適，勞役所傷而然。……”¹¹⁾

原本『內外傷辨惑論』 卷上의 “「辨陰證陽證」；曰甚哉，陰陽之證，不可不詳也。遍觀內經中所說，變化百病，其源皆由喜怒過度，飲食失節，寒溫不適，勞役所傷而然。……”¹²⁾

과 비교하면 또한 『醫方類聚』의 『東垣內外傷辨』은 『內外傷辨惑論』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醫方類聚』의 『東垣辨惑』과 『東垣內外傷辨』은 『內外傷辨惑論』이라는 동일한 책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醫方類聚』에 인용된 『和劑指南』·『增注和劑』를 原本『太平惠民和劑局方』과 비교하였다.

『和劑指南』¹³⁾：「論中風證候」，「論諸風之由」，夫中風者，皆因陰陽不調，臟府氣偏，榮衛失度，血氣錯亂，喜怒過傷，飲食無度，嗜欲恣情，致於經道或虛或寒，體虛而腠理不密，風邪之氣中於人也。……

『太平惠民和劑局方』¹⁴⁾：「論中風證候」，……「論諸風之由」，夫中風者，皆因陰陽不調，臟府氣偏，榮衛失度，血氣錯亂，喜怒過傷，飲食無度，嗜欲恣情，致於經道或虛或寒，體虛而腠理不密，風邪之氣中於人也。……

『增注和劑』¹⁵⁾：和氣散：治脾胃不和，中脘氣滯，宿寒留飲，停積不消，心腹脹滿，嘔吐酸水，

8) 金斗鍾. 위의 책, 223-224에는 『東垣辨惑』·『增注和劑』·『和劑指南』·『元戎拾遺』의 名稱이 없다.

9)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1分冊), 514.

10) 李東垣. 『內外傷辨惑論』,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745冊」, 「子部51」, 『醫家類』, 臺北國立故宮博物院 所藏本. 서울: 驪江出版社, 1988: 394.

11)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5分冊), 458.

12) 李東垣. 『內外傷辨惑論』, 위의 책 「第745冊」, 「子部51」, 『醫家類』, 365.

13)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1分冊), 333.

14) 許洪 增補. 『太平惠民和劑局方』, 위의 책 「第741冊」, 「子部47」, 『醫家類』, 717.

脾疼泄瀉, 臟腑不調, 飲食減少, 應男子女人一切氣疾, 并宜服之. ……

『太平惠民和劑局方』卷3¹⁶⁾ : 和氣散: 治脾胃不和, 中脘氣滯, 宿寒留飲, 停積不消, 心腹脹滿, 嘔吐酸水, 脾疼泄瀉, 臟腑不調, 飲食減少, 男子女人一切氣疾, 并宜服之. ……

따라서 『增注和劑』, 『和劑指南』은 『太平惠民和劑局方』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元戎拾遺』에 대해 알아보았다.

『醫方類聚』卷61 「傷寒門」35에 인용되어 있는데, 그 내용중 “活人敗毒散: 太陽證 治傷風, 溫疫, 風溫, 風眩, 風痰, 卑溫. 羌活 獨活 前胡 柴胡 枳殼 人蔘 茯苓 桔梗 甘草 川芎分兩髓病加減 ……”¹⁷⁾

原本 『醫壘元戎』卷1의 “活人敗毒散: ____ 治傷風, 溫疫, 風濕, 風眩, 風痰, 卑濕. 羌活 獨活 前胡 柴胡 枳殼 人蔘 茯苓 桔梗 甘草 川芎____ ……”¹⁸⁾

과 비교해보면 동일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秘傳外科』-『秘傳外科方』,¹⁹⁾ 『三元延壽書』-『延壽書』, 『龍樹菩薩眼論』-『龍樹菩薩』,²⁰⁾ 『痘疹方』-『陳氏小兒痘疹方』²¹⁾ 등은 原書의 이름을 간략히 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原書가 없어서 비교할 수 없었다. 앞으로 원서가 발굴되어 고증연구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기대한다.

3.3. 篇名이 引用書名으로 바뀐 경우

우선 『醫方類聚』는 篇名이 引用書名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²²⁾고 하였는데, 필자는 『得效方七十二證方』과 『證治提綱』²³⁾에서 확인하였다.

『證治提綱』²⁴⁾ : 『證治提綱』 「得病有因」 治病活法, 雖貴於變受病之證, 尤貴於問得病之因. 風則走注, 寒則拘攣, 暑則煩渴, 濕則重滯, 此受病之證然爾. ……

『仁齋直指方』卷25: 「證治提綱」 「得病有因」 治病活法, 雖貴於變受病之證, 尤貴於問得病之因. 風則走注, 寒則拘攣, 暑則煩渴, 濕則重滯, 此受病之證然爾. ……

『得效方七十二證方』²⁶⁾ : 『得效方七十二證方』 「內障」 「圓翳第一」 圓翳者, 黑珠上一點圓, 日中見之差小, 陰處見之則大白, 或明或暗, 視物不明, 醫者不曉, 以冷藥治之, 轉見黑花暗, 此因肝腎俱虛而得也, 宜服後藥. ……

15)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5分冊), 490.

16) 許洪 增補. 『太平惠民和劑局方』. 위의 책 「第741冊」 「子部47」 「醫家類」, 544.

17)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3分冊), 415.

18) 王好古. 『醫壘元戎』. 위의 책 「第745冊」 「子部51」 「醫家類」, 645.

19) 金斗鍾. 위의 책, 223-224에는 『秘傳外科』의 名稱이 없다.

20) 金斗鍾. 앞의 책, 223-224.에는 『龍樹菩薩』의 名稱이 없다.

21) 金斗鍾. 앞의 책, 223-224.에는 『小兒痘疹方』으로 되어 있다.

22)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1分冊) 「校點說明」, [2].

23) 金斗鍾. 위의 책, 223-224.에는 『得效方七十二證方』, 『證治提綱』의 名稱이 없다.

24)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1分冊), 22.

25) 楊士瀛. 『仁齋直指方』. 위의 책 「第744冊」 「子部50」 「醫家類」, 30.

26)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3分冊), 124.

『得效方』²⁷⁾ : 「七十二證方」, 「內障」, 「圓翳第一」, 圓翳者, 黑珠上一點圓, 日中見之差小, 陰處見之則大或明或暗, 視物不明, 醫者不曉, 以冷藥治之, 轉見黑花暗, 此因肝腎氣虛而得也, 宜服後藥.

위에서 『醫方類聚』의 引用書로 되어 있는 『證治提綱』은 『仁齋直指方』에 있는 篇名이고, 『得效方七十二證方』의 『得效方』은 書名이고 '七十二證方'은 『득효방』의 篇名이므로 이는 原書名과 篇名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외에 아래에 설명하겠지만 著者と 書名을 함께 引用書名으로 表記되었다고 의심되는 引用書도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醫方類聚』에서 引用書를 表記하는데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동일한 책을 異名으로 각각 引用한 경우가 있거나, 혹 原書名과 함께 약칭으로 표기하였고, 篇名을 引用書名으로 기록하거나 혹은 引用書명을 篇名으로 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著者と 書名을 같이 引用書로 表記하는 등이다. 『醫方類聚』를 研究하는데 위에서 지적한 몇가지 문제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4. 引用書의 著者·著述時期

引用書에 대해 著者나 著述時期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추측할 수 있는 것, 단지 서적의 존재 기록만 있는 것,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 등으로 나누어 가나다순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管見大全良方』은 宋代 陳子明이 10卷으로 저술한 책으로 실전되었다고 한다.²⁸⁾ 『經驗良方』은 阮霖이 지은 책이다.²⁹⁾ 『簡要濟衆方』은 宋代 醫官이었던 周應이 1051년에 『聖惠方』에서 處方을 골라 5卷으로 編成한 것이다.³⁰⁾ 『簡易方』·『斷病提綱』은 南宋의 醫師였던 黎民壽(1260-1264년에 佛敎를 믿음)가 지은 것으로 『玉函經』을 注한 후에 『簡易方』·『斷病提綱』·『決脈精要』를 지었는데, 이들 4卷 醫書를 合하여 『醫家四書』라고 한다.³¹⁾ 『臞仙活人心』은 明代 朱權(1378-1448년)이 2卷으로 지어 14세기말에 刊行한 『新刊京本活人心法』 혹은 『臞仙活人心方』으로, 上卷은 養生法을, 下卷은 玉笈26方과 加減靈秘18方の 處方을 기록하였다.³²⁾ 『金匱鉤玄』은 元代 朱震亨(1281-1358年)의 臨床治療經驗을 編述한 것을 戴元禮가 校正하고 補充하여 1358년에 刊行한 綜合性 醫書로서 卷1, 2는 內科雜病을 爲主로 하고 兼하여 喉症과 外科病症을 記述하고 卷3은 婦人, 小兒病症을 論하였다.³³⁾ 『金匱方』은 東漢의 張機가 219년에 著述한 책으로

27) 危亦林. 『世醫得效方』. 위의 책 「第746冊」, 「子部52」, 「醫家類」, 520.

28)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中醫人物詞典』. 1次印刷,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8: 323.

29)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10分冊) 「卷216」, 257. ; 蕭源 等輯. 『永樂大全醫藥集』. 1版1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949.에 나오는 내용을 서로 확인함.

30) 甄志亞 主編. 『中國醫學史』. 1版1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212.

31)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662.

32) 『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 編. 『中醫大辭典』, 「醫史文獻分冊」. 1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194.

33) 甄志亞 主編. 위의 책, 262.

『傷寒雜病論』중에 雜病과 관련있는 部分이다.³⁴⁾ 『金丹大成』은 元代 蕭元瑞가 1卷으로 撰한 道教內丹書이다.³⁵⁾ 『急救仙方』의 宋代 사람이 撰한 醫書로서 發背·疔瘡·眼病·痔瘻·雜瘡등을 記載하고, 內科·婦人科·小兒科의 治療方劑등을 포함하고 있다.³⁶⁾

『蘭室秘藏』은 金元代的 李杲가 1276년에 著述한 것으로 內傷脾胃論을 基本的 觀點으로 삼아 辨證施治·處方을 자세하게 기술한 책이다.³⁷⁾ 『南陽活人書』·『無求子活人書』는 1108년에 朱宏이 22권으로 著述한 原名이 『無求子傷寒百問』인 책이다. 『南陽活人書』는 張仲景이 南陽에 居處하였고, 華佗가 『傷寒論』을 '活人書'라고 부른대서 생긴 異名이고, 『無求子活人書』는 朱宏의 號가 無求子이기에 붙여진 異名으로 보인다.³⁸⁾

『澹寮方』은 宋元間의 醫學僧이었던 繼洪이 雜方을 모아 門別로 나누어 1283년에 撰한 『澹寮集驗秘方』³⁹⁾인 것으로 보인다. 『大成本草』는 唐慎微가 1086년에 撰한 『經史證類備急本草』라는 책⁴⁰⁾으로서, 『經史證類大成本草』라는 이름으로 元代에 刊行된 판본으로 보인다.⁴¹⁾ 『東垣內外傷辨』은 金代 사람인 李杲가 1247년에 著述한 『內外傷辨惑論』으로 飲食勞倦으로 發生하는 疾病을 주로 論述하였다.⁴²⁾ 『東垣試效方』은 羅天益이 그 스승이었던 李杲가 사용했던 有效한 方論을 모아 9卷으로 만든 책이다. 1280년에 王博文이 쓴 序가 있다.⁴³⁾ 『得效方』의 原名은 『世醫得效方』으로 危亦林이 1328년에 編撰하기 시작해서 1337년에 完成하고 1345년에 刊行하였는데, 危亦林的 집에서 5代로 내려오던 經驗方을 元代에 정해져있던 醫學科目을 따라서 19卷으로 編輯한 책이다.⁴⁴⁾

『拔粹方』은 杜思敬이 1315년에 編輯한 醫學叢書로서 金元醫書 19종-張元素·張璧·李杲·王好古·羅天益·竇傑등의 著書 18종과 자신의 著書 1권-을 발취하여 만든 책으로 原名은 『濟生拔粹』이다.⁴⁵⁾ 『保命集類要』은 張元素의 아들인 張璧이 著述한 『雲岐子保命論集類要』으로서,⁴⁶⁾ 이 책은 『濟生拔粹』에 編入되어 있고, 傷寒六經病證, 傷寒主方과 變方の 適應證과 雜證을 나누어

34) 王雲凱 主編. 『中國名醫名 著名方』. 1版1次印刷.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3: 289.

35) 張志哲 主編. 『道教文化辭典』. 1次印刷. 上海: 江蘇古籍出版社, 1994: 500.에 처음 「無極圖說」이라는 篇名이 있고, 「金液還丹賦」·「金液還丹論」·「金丹問答」·「解注崔公『入藥鏡』」·「解注呂公沁園春」등을 收輯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醫方類聚』 卷122 『金丹大成』에 수록된 篇名과 같았다.

36) 甄志亞 主編. 위의 책, 239.

37) 王雲凱 主編. 위의 책, 522.

38) 王雲凱 主編. 앞의 책, 258.

39)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540.

40) 王雲凱 主編. 위의 책, 307.

41) 張允亮 編. 『故宮善本書目』. 李茂如·胡天福·李若鈞 編著. 『歷代史志書目 著錄醫籍匯考』. 1版1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175.

42) 甄志亞 主編. 위의 책, 259.

43) 馬繼興 著. 위의 책, 190.

44) 王雲凱 主編. 위의 책, 349.

45) 馬繼興 著. 위의 책, 202.

46)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3分冊) 「卷16」, 428; 蕭源 等輯. 위의 책, 491.에 나오는 내용을 서로 비교 확인함.

記述하고 있다.⁴⁷⁾ 『婦人大全良方』은宋代 陳自明이 1237년에 著述한 책으로 24卷에 8門, 260여개의 證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⁴⁸⁾ 『脾胃論』은 李杲가 1249년에 著述한 책이다.⁴⁹⁾ 『秘傳外科方』은 元·明간의 道學者인 趙宜眞이 지은 책이다.⁵⁰⁾

『事林廣記』는 元代 陳元靚이 집찬한 책이다.⁵¹⁾ 『山居四要』는 元代 사람인 汪汝慰가 4卷으로 지은 책으로 『加減十三方』 1卷이 附錄으로 있다.⁵²⁾ 『三因方』은 南宋의 陳言(字 無擇)이 1174년에 著述한 『三因極一病證方論』이란 책으로 18卷, 180門에 1,500여개의 處方을 기록하고 있다.⁵³⁾ 『三元延壽書』는 본래 이름이 『三元延壽參贊書』라는 책으로, 李澄心(이름은 鵬飛, 號는 澄心老人)이 1291년에 天地人을 綱으로 삼고 起居飲食의 節度を 目으로 삼아서 記述한 것이다.⁵⁴⁾ 『傷寒論注解』은 成無己가 1144년에 『內經』·『難經』등의 理論으로 『傷寒論』을 注解한 『注解傷寒論』이다.⁵⁵⁾ 『傷寒明理論』은 成無己가 1156년에 著述한 책이다.⁵⁶⁾ 『傷寒發微論』은 許叔微가 1132년에 上下2卷에 論文 22篇을 收錄하여 著述한 책이다.⁵⁷⁾ 『傷寒百問歌』는 南宋의 錢聞禮(1131-1162)가 4卷으로 著述한 책⁵⁸⁾으로 『傷寒論』原文을 근거로 7言歌訣의 형식으로 93개의 問題를 제시하였다.⁵⁹⁾ 『傷寒百證歌』는 許叔微가 1132년에 『傷寒論』의 內容을 7言歌訣 형식으로 100首의 歌訣로 編成한 책이다.⁶⁰⁾ 『傷寒心要論』은 劉完素의 門人인 金代사람인 鑄洪이 傷寒證治를 모아 著述한 책이다.⁶¹⁾ 『傷寒醫鑑』은 金代 馬宗素가 1卷으로 著述한 劉完素의 觀點으로 朱宏의 『活人書』를 反駁한 책이다.⁶²⁾ 『傷寒直格』은 劉完素가 1186년에 著述한 『傷寒直格論』⁶³⁾이다. 『傷寒活人書括』은 『傷寒類證活人書括』의 簡稱으로서,⁶⁴⁾ 이 책은 南宋의 李知先이 1166年

47)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540.

48) 甄志亞 主編. 위의 책, 245.

49) 王雲凱 主編. 위의 책, 394.

50)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443; 嚴世蕓 主編. 위의 책, 4548.

51) 白永波·孫光榮 主編. 『中醫養生大全』, 1版 2次印刷.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763.에 『事林廣記』 「孫眞人枕上記」라는 篇名이 나오는데, 『醫方類聚』 권121에 인용된 『事林廣記』에서 위에 나온 篇名을 확인하고 內容을 확인함.

52) 嚴世蕓 主編. 『中國醫籍通考』, 1版 2次印刷.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2: 1522.

53) 王雲凱 主編. 위의 책, 517.

54)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237.

白永波·孫光榮 主編. 위의 책, 762.에 『三元延贊延壽書』 「人元之壽飲食有度者得之」라는 篇名과 內容이 나오고, 같은 책 771.에는 「天元之壽精氣不耗者得之」의 이름과 內容이 나오는데, 『醫方類聚』 卷201에 引用된 『三元延壽書』중에서 위에 나오는 篇名과 함께 內容을 비교 확인함.

55) 王雲凱 主編. 위의 책, 263.

56) 王雲凱 主編. 앞의 책, 264.

57) 王雲凱 主編. 앞의 책, 262.

58)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504.

59) 『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 編. 위의 책, 70.

60) 王雲凱 主編. 위의 책, 261.

61) 馬繼興 著. 위의 책, 187.

62) 甄志亞 主編. 위의 책, 217.

63) 王雲凱 主編. 위의 책, 267.

에 『南陽活人書』에 記述된 各各의 證에 하나의 歌나 혹은 두세개의 歌를 만들어 著述한 책이다.⁶⁵⁾ 『徐氏胎產方』은 明代 徐守貞이 著述한 『胎產』(일명 『徐氏胎產』)이라는 책인데⁶⁶⁾ 이 책은 明代 邵以正이 著述한 『青囊雜纂』(1459년)에서 볼 수 있다.⁶⁷⁾ 『瑞竹堂方』은 元代 몽고족 의사인 沙圖穆蘇가 1326년에 著述한 『瑞竹堂經驗方』 15卷⁶⁸⁾이다. 『宣明論』은 劉完素가 1172년에 著述한 『醫方精要宣明方論』⁶⁹⁾을 가르킨다. 『省翁活幼口議』는 元代 曾世榮(1253-1332?년)이 著述한 『活幼口議』 20卷이다.⁷⁰⁾ 『聖濟總錄』은 宋 徽宗대에 政府組織을 構成하여 1111-1117년에 걸쳐 만들어진 책이다.⁷¹⁾ 『聖惠方』은 北宋 王懷隱이 992년에 著述한 『太平聖惠方』이다.⁷²⁾ 『巢氏病源』은 隋代에 巢元方이 610년에 著述한 中國 第一의 疾病病因과 證候學을 專門的으로 論述한 『諸病源候論』이다.⁷³⁾ 『小兒藥證』은 宋代 醫師인 劉景祐(혹은 劉景裕)가 著述한 책으로 失傳되었다.⁷⁴⁾ 『小兒藥證直訣』은 北宋 錢乙이 1119년에 著述한 小兒科 專門醫書이다.⁷⁵⁾ 『壽域神方』은 明代 朱權(1378-1448년)이 著술한 책이다.⁷⁶⁾ 『袖珍方』은 1391년에 朱橚가 李恒 등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編한 『保生餘錄』, 『普濟方』 등에서 經驗方을 발췌하여 編성한 醫書로서 一名 『袖珍方大全』이라고도 한다.⁷⁷⁾ 『修真秘訣』은 明代 王蔡傳이 著述한 養生氣功에 관한 專門書籍으로 起居·飲食 등의 調養에 대해 論述한 『修真秘要』⁷⁸⁾를 가르킨다. 『壽親養老書』는 元代 鄒鉉(1237-약1307년)이 陳直의 『奉親養老書』 1卷을 3卷으로 增補하여 『壽親養老新書』라고 한 책으로 老人養生에 대해 자세하다.⁷⁹⁾ 『是齋醫方』은 南宋의 王璆가 1196년에 28卷(혹 30卷)으로 31門, 1,000餘個의 處方을 記錄하여 著述한 『是齋百一選方』⁸⁰⁾이다.⁸¹⁾ 『食醫心鑒』은 唐 昝殷이 853년

64)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3分冊) 「卷55」, 262; 蕭源 等輯. 위의 책, 498.에 나오는 내용을 서로 비교 확인함.

65)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230.

66)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앞의 책, 514.

67) 嚴世堯 主編. 위의 책, 3866. 『青囊雜纂』 8種에 『徐氏胎產方』과 『仙傳濟陰方』이라는 2종의 婦人科 서적이 있다.

68)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281.

69) 甄志亞 主編. 위의 책, 255.

70)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11分冊) 「卷240」, 34; 曾世榮 著. 『活幼口議』. 1次印刷. 北京: 中國古籍出版社, 1985: 1-4.의 내용을 서로 비교 확인함.

71) 王雲凱 主編. 위의 책, 613.

72) 王雲凱 主編. 앞의 책, 335.

73) 王雲凱 主編. 앞의 책, 514.

74)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171.

75) 王雲凱 主編. 위의 책, 434.

76)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125.

77) 『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 編. 위의 책, 216.

78) 呂光榮 主編. 『中國氣功辭典』. 1版2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337.

79)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258.

80)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앞의 책, 31.

81)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1分冊) 「卷20」, 535; 王璆 著. 『是齋百一選方』. 1版1次印刷.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34-35.에 나오는 내용을 서로 비교 확인함.

에 3卷으로 編著하였는데, 宋代에는 존재하였으나 후에 失傳되었다.⁸²⁾ 이 書名은 『崇文總目』에 있고, 『通志』에서는 宋太祖 아버지 諱 ‘鑿’字를 ‘鏡’字로 고쳐 『食醫心鏡』이라고 稱하였다.⁸³⁾ 『神巧萬全方』은 宋代 劉完賓이 『太平聖惠方』에서 方劑를 발췌하여 12권으로 編纂한 醫書이다.⁸⁴⁾ 『神隱』은 明代 朱權이 4卷으로 著述한 『麗仙神隱』⁸⁵⁾인데, 그 내용은 攝生의 方法·飲食忌宜·時藥季節·環境設備·과일의 貯藏法·禁辟蟲毒과 畜病治療등으로 衛生學 專門書籍이다.⁸⁶⁾ 『神效名方』은 張從正이 수집한 經驗方으로 編纂한 『世傳神效名方』을 가르킨다.⁸⁷⁾

『御藥院方』은 宋代 皇室의 用藥機構인 御藥院에서 使用하는 處方을 모은 책으로 初刊本은 失傳되었고 1242년에 元代 許國楨이 撰한 것이 있다.⁸⁸⁾ 『御醫撮要』는 高麗의 崔宗峻이 1226년에 著述한 책이다.⁸⁹⁾ 『嚴氏濟生方』은 南宋의 嚴用和가 1253년에 論治80類, 制方 400種을 10卷으로 著述한 『濟生方』이다.⁹⁰⁾ 『嚴氏濟生續方』은 『濟生方』에 수록된 方劑를 15年間 應用하고 效果가 좋아 著述한 『濟生續方』인데 失傳되었다.⁹¹⁾ 『烟霞聖效方』는 韓義和가 著述한 책이다.⁹²⁾ 『永類鈴方』은 元代 李仲南이 1331년에 22卷으로 著述한 책으로, 醫經에 根本을 두고 各類 外感 內傷과 外科, 正骨의 疾病을 脈·病·因·證·治例로 論하였다.⁹³⁾ 『吳氏集驗方』은 宋代 吳得夫가 著述한 『集驗方』, 7卷을 가르킨다.⁹⁴⁾ 『玉機微義』은 徐用誠이 撰集한 『醫學折衷』(17門)을 明代 劉純이 1396년에 50門으로 增補한 것이다.⁹⁵⁾ 『王氏易簡方』은 南宋代 醫師인 王碩이 1191년에 著述한 『易簡方』, 1卷이다.⁹⁶⁾ 『王氏集驗方』은 元代 醫官인 王東野가 著述한 『集驗方』을 가르킨다.⁹⁷⁾ 『外科精要』는 南宋代 陳自明이 1263년에 李迅·伍起予·曾孚先등의 『集驗背疽方』, 『外科新書』 등의 醫書를 基礎로 編성한 宋以前 外科經驗을 總結한 책이다.⁹⁸⁾ 『外科精義』는 元代 齊德之가 1355년에 著述한 14세기 外科文獻中の 代表書이다.⁹⁹⁾ 『外科集驗方』은 元代 外科醫師인 楊

82) 甄志亞 主編. 위의 책, 144.

83) 葉橘泉. 「中醫食療史文獻考」. 『中醫雜誌』, 1985: 3: 73.

84)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158.

85) 張志哲 主編. 위의 책, 599에는 『神隱志』 2卷으로 되어 있고 道教傳記物이라고 하였다.

86) 華蓓苓. 「博而有統的中醫衛生學專著『麗仙神隱』」. 『上海中醫藥雜誌』, 1985: 12: 34.

87) 馬繼興 著. 위의 책, 187.

88) 馬繼興 著. 앞의 책, 176-177.

89) 申舜植外. 「歷代韓醫學文獻의 考證 I」. 서울: 韓國韓醫學研究所, 1996: 75.

90) 甄志亞 主編. 위의 책, 227.

91) 甄志亞 主編. 앞의 책, 227.

92)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4分冊) 「卷70」, 183.; 蕭源 等輯. 위의 책, 711.에 나오는 내용을 서로 비교 확인함.

93)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225.

94)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앞의 책, 254.

95) 王雲凱 主編. 위의 책, 530.

96)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29.

97)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앞의 책, 40.

98) 王雲凱 主編. 위의 책, 460.

99) 王雲凱 主編. 앞의 책, 461.

清叟가 著述한 『仙傳外科集驗方』으로 1378년에 刊行되었다.¹⁰⁰⁾ 『衛生寶鑑』은 元代 羅天益(1220-1290년)이 다른 學者들의 견해를 모아 여기에 자신의 經驗을 融合해서 1343년에 著述한 책이다.¹⁰¹⁾ 『衛生十全方』은 宋代 夏子益이 스승에게 받은 處方과 간단하게 사용하여 效果를 얻은 것을 취하여 10卷으로 하고 家藏方 2卷과 자신이 著述한 『奇疾方』1卷을 合하여 만든 책이다.¹⁰²⁾ 『衛生易簡方』은 明代 胡澐(1375-1463년)이 145類로 나누어 396處方과 服藥忌例 22條와 獸醫單方 47首를 수록한 책이다.¹⁰³⁾ 『儒門事親』·『治病百法』·『十形三察』·『雜記九門』·『治法雜論』·『三法六門』·『世傳神效名方』은 張從正이 1228년에 『儒門事親』으로 合하여 刊行한 것이다.¹⁰⁴⁾ 『陰證略例』는 1236년에 王好古가 陰證傷寒만을 專門적으로 論述한 책이다.¹⁰⁵⁾ 『醫壘元戎』은 王好古가 1291년에 著述하고 1297년에 刊行한 책이다.¹⁰⁶⁾ 『理傷續斷方』은 當代 藺道人이 著述(846년전후)한 『仙授理傷續斷(秘)方』으로 中國에서 가장 오래된 骨傷科 專門書籍이다.¹⁰⁷⁾

『助道方』은 南宋의 溫大明이 1216년에 著述한 『隱居助道方服藥須知』¹⁰⁸⁾이다.¹⁰⁹⁾ 『肘後方』은 東晉의 葛洪이 3세기말에 著述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肘後救卒方』을 가르킨다.¹¹⁰⁾ 『直指方』은 1264년에 楊士瀛이 著述한 『仁齋直指方』을 가르킨다.¹¹¹⁾ 『陳氏小兒痘疹方』은 陳文中이 1254년에 著述한 『小兒痘疹方論』¹¹²⁾이다.

『瘡科通玄論』는 楊德春(혹은 楊得春)이 3권으로 著述하였다고 하는데 失傳되었다.¹¹³⁾ 『千金方』은 唐代 孫思邈이 652년에 著述한 『備急千金要方』으로서 中國最初の 醫學百科全書이다.¹¹⁴⁾ 『千金月令』은 『新唐書』·『藝文志』에 나와있는 孫思邈의 著書 24種중에 『千金月令』3卷이라는 기록이 있다.¹¹⁵⁾ 『千金翼方』은 孫思邈이 晚年 682년에 『千金要方』을 補充하기 위해 만든 책으로 특히 本草·傷寒·中風·雜病·癰疽등의 論述이 뛰어나다.¹¹⁶⁾ 『胎產救急方』은 李辰拱이 1318년에

100)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207.

101) 甄志亞 主編. 위의 책, 270.

102)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488.

103)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앞의 책, 428.

104) 王雲凱 主編. 위의 책, 521.

105) 甄志亞 主編. 위의 책, 217.

106) 王雲凱 主編. 위의 책, 523.

107) 甄志亞 主編. 위의 책, 169-170.

108)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625.

109)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11分冊)「卷258」, 587; 蕭源 等輯. 위의 책, 90.에 나오는 내용을 서로 비교 확인함. 『永樂大全』에는 『隱居方』이라고 되어 있다.

110) 王雲凱 主編. 위의 책, 329.

111) 甄志亞 主編. 위의 책, 227.

112) 甄志亞 主編. 앞의 책, 248

113)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209.

114) 甄志亞 主編. 위의 책, 152.

115) 雷自申·趙石麟·張文·李經緯·郭謙亨·王學禮 主編. 『孫思邈『千金方』研究』. 1版1次印刷. 西安: 陝西科學技術出版社, 1995: 24.에서 재인용.

116) 甄志亞 主編. 위의 책, 152.

古今의 效果있는 方書를 모아서 撰한 策이다.¹¹⁷⁾ 『通眞子傷寒括要』는 宋代 劉完賓(號 通眞子)이 1076년에 著述한 『傷寒括要』를 가르킨다.¹¹⁸⁾

『海上仙方』은 『海上方』·『海上名方』·『孫眞人海上方』이라고도 불리는데, 唐代 孫思邈을 托名하여 撰한 것이다.¹¹⁹⁾ 『和劑局方』은 1078-1085년에 初刊본인 『太醫局方』 10卷이 著述되었고 1107-1108년에 陳師文 등이 校正하여 『校正和劑局方』 5卷이 刊行되었고 『太平惠民和劑局方』 5卷이 1151년에 나왔고 1208년에 許洪이 增補한 『(增)注太平惠民和劑局方』 10卷이 나왔고 13세기말에 作者未詳의 『增注太平和劑局方』 10卷이 나왔다.¹²⁰⁾ 『和劑指南』은 許洪 자신이 著述한 『和劑指南總論』¹²¹⁾으로 생각되며 이 책은 『(增)注太平惠民和劑局方』을 간행하면서 같이 간행하였다.

다음으로는 著者나 著述時期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引用書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經驗秘方』은 元代 사람이 8卷으로 지은 것으로 現存하지 않는다.¹²²⁾ 『濟軒方』에 대해 丹波元胤¹²³⁾은 그 方論을 吟味하여 元代 사람이 지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保童秘要』는 『中國醫籍通考』에 劉完素가 2권으로 著述한 것이라고 하였으나,¹²⁴⁾ 실제로 믿을만하지 않다고 한다.¹²⁵⁾ 『四時纂要』라는 醫書名은 나오지 않고 단지 南宋代 醫師인 屠鵬(字 時學)이 撰한 『四時治要方』 1卷의 기록이 보인다.¹²⁶⁾ 『産寶』는 一名 『經效産寶』라고도 하며 唐代 昝殷이 9세기말에 撰한 醫書¹²⁷⁾으로 추측된다. 『傷寒類書』은 宋代 楊士瀛이 『傷寒論』과 『傷寒類證活人書』 2종의 책을 爲主로 楊氏 자신의 見解로서 編성한 『傷寒類書活人總括』¹²⁸⁾이라는 책의 簡稱인 것으로 추측된다. 『傷寒指掌圖』는 吳恕(1256년-?)가 著述한 『傷寒活人指掌圖』¹²⁹⁾로 추측된다. 『傷寒活人書』는 南宋 楊士瀛의 『傷寒類證活人總括』¹³⁰⁾로 추측된다. 『仙傳濟陰方』에 대해 丹波元胤은 作者未詳¹³¹⁾이라고 하였으나 嚴世堃은 이 책의 著者は 劉淵然이라는 明代 의사라고 하면서 丹波元胤이 잘못되었다고 하고¹³²⁾ 『中國人物詞典』에서는 劉淵然의 著書는 『濟世仙方』 1권이라고 하니 좀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施圓端效方』은 3卷인데 『文淵閣書目』에 “端效方 一部一冊

117)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227.

118)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앞의 책, 158.

119) 『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 編. 위의 책, 215.

여기서는 『鄭堂讀書記』를 根據로 宋代 錢宇가 撰한 것이라고 하였다.

120) 馬繼興 著. 위의 책, 177-179.

121) 馬繼興 著. 앞의 책, 178.

122) 嚴世堃 主編. 위의 책, 2359.

123) 丹波元胤編. 『中國醫籍考』. 2版. 2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682.

124) 嚴世堃 主編. 위의 책(4卷), 4067.

125) 甄志亞 主編. 위의 책, 255.

126)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李茂如·胡天福·李若鈞 編著. 위의 책, 432.

127) 馬繼興 著. 위의 책, 220.

128) 『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 編. 위의 책, 76.

129) 甄志亞 主編. 위의 책, 273.

130)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198.

131) 丹波元胤編. 위의 책, 975.

132) 嚴世堃 主編. 위의 책, 3824-3825.

闕”¹³³⁾의 기록이 있고 또 施圓端의 『效方』으로 나와있기도 하므로,¹³⁴⁾ 『醫方類聚』에 引用된 『施圓端效方』은 著者和 書名이 합쳐진 이름이고 책의 본명은 『端效方』 혹은 『效方』이라고 생각된다. 『五藏論』은 六朝時代에 著述되었을 것이라는 『耆波五藏論』을 가르킨다¹³⁵⁾고 하였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는 張仲景이 編纂(託名했다는 논란이 있다)했다는 『五藏論』과 비교한 경우가 있어¹³⁶⁾ 이에 대한 연구를 기대한다. 『龍樹菩薩眼論』은 唐代의 眼科學 專門醫書인 『龍樹論』¹³⁷⁾으로 추측된다. 『醫林方』에 대해 丹波元胤은 그 方論을 吟味하여 元代 사람이 지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¹³⁸⁾ 『醫方大成』은 宋末元初의 道士인 陳子靖의 著書라고 하고¹³⁹⁾ 『醫方集成』은 孫允賢이 1314-1320년에 著述한 책¹⁴⁰⁾이라고 한다.¹⁴¹⁾ 『朱氏集驗方』은 南宋代 朱佐가 1266년에 著述한 『類編朱氏集驗醫方』¹⁴²⁾으로 추측된다. 『通眞子傷寒括要詩』는 劉完賓의 著書로 보인다. 이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3).

133) 丹波元胤編. 위의 책, 674.

134) 蕭源 等輯. 위의 책, 130.

135) 丹波元胤編. 위의 책, 179-180; 王叔民·龐莎莎. 「敦皇吐魯番出土古本五藏論的考察」, 『中華醫史雜誌』 1995: 1: 46.

136) 叢春雨 主編. 『敦皇中醫藥全書』. 1版1次印刷.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54-68·70·75-76·78-84·86-87.의 「校注」를 참조.

張仲景 『五藏論』의 著者에 대하여 張仲景이 撰한 『張仲景評病要方』과 같은 책이라는 說과 張仲景을 託名하였다는 說이 있으며, 著述時期에 대해서는 南北朝後期, 혹은 隋代, 혹은 唐代初期, 唐代에 著述되었다는 3가지 說이 있다.

137) 馬繼興 著. 위의 책, 238.

138) 丹波元胤編. 『中國醫籍考』. 2版2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682.

139) 甄志亞 主編. 위의 책, 228.

140) 甄志亞 主編. 앞의 책, 228;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178.

141)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5分冊) 「卷91」, 226; 蕭源 等輯. 위의 책, 842.에 나오는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 『醫方類聚』에서 『醫方大成』의 내용과 『永樂大全』에서의 孫允賢의 『醫方集成』의 내용이 같다. 그리고 『永樂大全醫藥集』에 孫允賢의 『醫方大成』이라는 기록도 보이므로 이 당시에도 陳子靖의 『醫方大成』과 孫允賢의 『醫方集成』이 서로 混同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142)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위의 책, 428.

표 3. 『醫方類聚』引用書중 원래의 책으로 추측되는 圖書名

引用書名	추측되는 서적		
	書名	著者	著述時期
『經驗秘方』		元代人	元代
『澹軒方』		元代人	元代
『保童秘要』		劉完素	
『四時纂要』	『四時治要方』	屠鷗	南宋
『產寶』	『經效產寶』	咎殷	唐代(9세기말)
『傷寒類書』	『傷寒類書活人總括』	楊士瀛	宋代
『傷寒指掌圖』	『傷寒活人指掌圖』	吳恕(1256년-?)	
『傷寒活人書』	『傷寒類證活人總括』	楊士瀛	南宋
『仙傳濟陰方』	『濟世仙方』	劉淵然	明代
『施圓端效方』	『端效方』, 『效方』	施圓端	
『五藏論』	『耆波五藏論』		六朝代
	『五藏論』	張仲景	
『龍樹菩薩眼論』	『龍樹論』		唐代
『醫林方』		元代人	元代
『醫方大成』		陳子靖	宋末元初
『醫方集成』		孫允賢	1314-1320
『朱氏集驗方』	『類編朱氏集驗醫方』	朱佐	1266
『通眞子傷寒括要詩』		劉完賓	

다음은 引用書의 著者나 著述時期는 알 수 없고 단지 書籍이 있었다는 記錄資料만 있는 4종의 引用書를 살펴보았다.

『居家必用』은 『脈望館書目』, 『養生門』에서 '居家必用十本'이라는 기재만 보인다.¹⁴³⁾ 『瑣碎錄』은 作者未詳이고 失傳된 책인데, 『寶素堂藏書目錄』에 기록되어 있다.¹⁴⁴⁾ 『運化玄樞』는 『脈望館書目』, 『養生門』에 '運化玄樞一本'이라는 記錄이 있고¹⁴⁵⁾ 『中國醫籍考』 卷80 『運氣』에 作者未詳이고 『絳雲樓書目』에 書名이 있다고 하였다.¹⁴⁶⁾ 『川玉集』은 『藝文略』에는 『穿玉集』으로 되어 있고 『崇文總錄』에 書名이 記錄되어 있는데 失傳되었다.¹⁴⁷⁾

『醫方類聚』에 引用書에 관한 기록을 전혀 볼 수 없는 책도 있다. 『簡奇方』¹⁴⁸⁾, 『勸善書』, 『南北經驗方』, 『痘疹方』¹⁴⁹⁾, 『寶丹要訣』¹⁵⁰⁾, 『福壽論』, 『秘傳外科』, 『秘傳外科方』, 『備預百要方』¹⁵¹⁾, 『傷

143) 趙琦美, 『脈望館書目』, 李茂如·胡天福·李若鈞 編著. 위의 책, 491. 참고로 趙琦美의 생존연대는 1563-1624年이다.

144) 嚴世藝 主編. 위의 책, 2343.

145) 趙琦美. 위의 책. 李茂如·胡天福·李若鈞 編著. 위의 책, 491.

146) 丹波元胤編. 위의 책, 1095

147) 嚴世藝 主編. 위의 책, 2351.

148) 『御醫撮要』-『備預百要方』의 다음에 배열되어 있는데 中國書籍을 時代順으로 배열한 후에 韓國의 醫書인 『御醫撮要』를 배치한 것으로 볼 때 『備預百要方』, 『簡奇方』은 韓國의 醫書로 의심된다.

寒心要餘論』·『修月魯般經』·『修月魯般經後錄』·『新效方』·『延壽書』¹⁵²⁾·『龍壽菩薩』¹⁵³⁾·『五臟六腑圖』·『王岳產書』¹⁵⁴⁾·『易簡方』·『直指小兒方』·『瘡科精義』·『瘡疹方』·『追勞方』·『追勞仙方』·『必用全書』·『必用之書』등이 있다.

5. 『醫方類聚』 引用書의 분석

『의방유취』는 91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부인문」이 26개, 「소아문」이 51개의 또 작은 항목이 있어서 인용회수를 살펴보니 전체 166개의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또한 『醫方類聚』 「凡例」¹⁵⁵⁾에 記述된 理論·方藥·食治·禁忌·鍼灸·導引의 분류에 따른 인용회수를 조사하였다.

우선 전체적인 인용회수를 살펴보면 理論·方藥·食治·禁忌·鍼灸·導引으로 나누어 조사한 인용회수의 총수는 5,415회이고 이중, 이론은 1,147회(21.2%), 방약은 3,794회(70.1%), 식치는 137회(2.5%), 금기는 116회(2.1%), 침구는 158회(2.9%), 도인은 63회(1.2%)였다. 이를 보면 『의방유취』는 처방(즉 약물치료 등의 치료법)에 중점을 둔 의서임을 알 수 있다.

5.1. 著述時期에 근거한 인용회수

시대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南宋時期(1127-1279년)와 金代(1115-1234년)사이의 중복기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자료의 著者가 어떤 時代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을 기준으로 삼아 引用書의 時期를 나누었다. 그리고 저술시기와 연대를 알 수 없는 인용서 31권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

인용서를 저술시기별 인용회수를 조사하여 『의방유취』가 중국 어느 시대의 의학사상을 수용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당대이전의 인용서는 『금례방』·『주후방』·『소씨병원』·『천금방』·『천금익방』·『이상속단방』·『식의심감』·『산보』와 정확한 저술연대를 알 수 없는 『千金月令』·『海上仙方』·『五藏論』등 모두 11종이 있다. 송대의 인용서는 『성혜방』·『간요제중방』·『통진자상한팔요』·『남양활인서』·『대전본초』·『성계총록』·『소아약증직결』·『상한발미론』·『상한백증가』·『상한활인서팔』·『삼인방』·『왕씨역간방』·『시제의방』·『화제국방』·『조도방』·『어의촬요』·『직지방』·『부인대전량방』·『엄씨제생방』·『진씨소아두진방』·『외과정요』·『엄씨제생속방』등 22권과 정확한 저술연대를 알 수 없는 『간이방』·『단병제강』·『관견대전량방』·『급구선방』·『상한백문가』·『소아약증』·『신교만전방』·『오씨집협방』·『위생십전방』·『상한류서』·『통진자상한팔요시』·『사시찬요』등 12권으로 총 36권이다. 금·원대에 나온 인용서는 『상한론주해』·『상한명리논』·『선명론』·『상한직격』·『삼법육문』·『신효명방』·

149) 『陳氏小兒痘疹方』의 簡稱으로 의심된다.

150) 내용으로 보아 道敎의 養生修煉書로 보인다.

151) 『御醫撮要』-『備預百要方』의 다음에 배열되어 있는데 中國書籍을 時代順으로 배열한 후에 韓國의 醫書인 『御醫撮要』를 배치한 것으로 볼 때 『備預百要方』, 『簡奇方』은 韓國의 醫書로 의심된다.

152) 『三元延壽書』의 簡稱으로 생각된다.

153) 『龍壽菩薩眼論』의 簡稱으로 생각된다.

154) 『胎產要錄』에 收錄되었다는 『五嶽產書』의 잘못된 이름이 아닌가 생각된다.

155)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 의 책(第1分冊) 「凡例」, [5].

『십형삼료』·『유문사친』·『잡기구문』·『치법잡론』·『치병백법』·『음증략예』·『어약원방』·『동원내외 상변』·『비위론』·『난실비장』·『담료방』·『삼원연수서』·『의루원용』·『발수방』·『태산구급방』·『서죽 당방』·『영류검방』·『득효방』·『위생보감』·『외과정의』·『금계구현』·『외과집험방』등 28권과 『금단대 성』·『동원시효방』·『보명집류요』·『비전외과방』·『사림광기』·『산거사요』·『상한심요론』·『상한의감』·『상한지장도』·『성옹활유구의』·『수친양노서』·『왕씨집험방』·『경험비방』·『담헌방』·『보동비요』·『의림방』·『의방대성』·『의방집성』등 정확한 저술연대를 알 수 없는 18권, 총 46권이였다. 명대 인용서는 『수진방』·『옥기미의』와 정확한 저술연대를 알 수 없는 『구선활인심』·『서씨태산방』·『수역신방』·『수진비결』·『신은』·『위생역간방』·『선전제음방』 7권등 총 9권이다.

위의 저술시기별 인용서들의 인용회수를 정리하였다(표 4)

표 4. 인용서의 저술시기별 인용회수 비율 회수(%)

분류	이론 (1,147회)	방약 (3,794회)	식치 (137회)	금기 (116회)	침구 (158회)	도인 (63회)
시대	(1,147회)	(3,794회)	(137회)	(116회)	(158회)	(63회)
당이전(11종)	165(14.4)	326(8.6)	39(28.5)	55(47.4)	51(32.3)	47(74.6)
송 (34종)	412(35.9)	980(25.8)	40(29.5)	17(14.7)	25(15.8)	2(3.2)
금·원(46종)	434(37.8)	1,293(34.1)	27(19.7)	18(15.5)	53(33.5)	4(6.3)
명 (9종)	59(5.1)	352(0.1)	8(5.8)	10(8.6)	12(7.6)	4(6.3)

전체적으로 송대와 금원대의 인용서가 인용회수가 가장 많고 이론과 방약에서는 송대와 금원대, 식치에서는 당대이전과 송대, 금기에서는 당대이전, 침구에서는 당대이전과 금·원대, 도인에서는 당대이전의 인용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唐代에는 도교적 성격의 養生·煉丹·采藥·求仙·服食·房中術 등에 관심이 있던 이들이 의서의 저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¹⁵⁶⁾ 의학도 이 부분을 상당히 수용하게 된 것으로 보아 당대 이전의 인용서가 식치·금기·침구·도인 등에 인용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방약과 이론에서 송대와 금·원대의 인용비율이 높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각된다. 송대는 대량의 方書가 출현하여 약물남용의 폐단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고 이에 반하여 기존이론의 정리와 깊은 연구를 통한 새로운 이론의 창조로 임상의학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던 시기였다. 금·원대는 『내경』과 『상한론』의 기본이론과 임상이론을 기초로 자신의 임상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배합해서 완벽과 계통화를 더하였으며 임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변증논치의 특징을 견고하게 하였고 특히 금원사대가라는 학파가 출현하여 상호논쟁으로 인해 의학이론이 분명해지게 된 시기이다. 이렇듯 이론과 임상의학이 병행하여 발전하였던 송대와 금원대의 서적들을 『의방유취』에서 인용하여 이 시기의 의학상황을 흡수하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의방유취』 편찬 당시 발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원사대가가 지은 인용서로 朱震亨의 『금계구현』, 李梴의 『비위론』·『난실비장』·『내외상변후론』과 장종정의 叢書『儒門事親』(內 6종), 劉完素의 『선명론』·『상한직격』이 있다. 장종정의 총서『유문사친』은 인용회수가 이론 154회, 방약 81회, 금기 1회, 침구 3회였고, 유완소의 저술은 이론이 17회, 방약은 50회이고, 이동원의 저서는 이론이 7회, 방약은

156) 甄志亞 主編. 위의 책, 131.

21회이고, 주단계는 이론 4회, 방약 65회였다. 이들중 전체적으로 장종정의 저서가 가장 많고 인용회수 또한 많았다. 가장 적은 저서가 인용된 사람은 주단계이고 인용회수에서는 이동원의 저서가 가장 적게 인용되었다. 이론은 장종정의 것이 많고 방약은 전체적으로 많은 인용회수를 보인다. 결국 『의방유취』는 금원사대가의 이론, 즉 劉河間의 “五運主病” “六氣爲病”說에 기초한 臟腑·六氣·病機學說, 張潔古의 ‘五運主病, 六氣爲病’에 기초한 “臟腑標本虛實寒熱用藥式”을 제시하고, 張子和는 祛邪하여 病을 치료하는데 汗·吐·下 3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설, 李杲의 脾胃元氣를 중시하고 陽氣의 升發을 강조해서 內傷 熱中證의 證治를 제시하는 등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용서의 인용회수조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약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저술시기를 알 수 없는 인용서 31권에 대한 고증연구가 우선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5.2. 『醫方類聚』의 門에 따른 引用回數

문별 인용회수가 50%이상의 인용서는 『경험비방』(51.6%)·『금계구현』(54.9%)·『담료방』(53.8%)·『담헌방』(68.1%)·『대전본초』(81.3%)·『득효방』(84.6%)·『발수방』(59.3%)·『비에백요방』(58.2%)·『삼인방』(71.4%)·『성혜방』(76.9%)·『소씨병원』(69.2%)·『쇄쇄록』(65.9%)·『수역신방』(76.9%)·『수진방』(60.4%)·『시제의방』(71.4%)·『영류검방』(65.9%)·『옥기미의』(51.6%)·『위생보감』(60.4%)·『위생이간방』(89.0%)·『의방대성』(70.3%)·『주씨집험방』(52.7%)·『주후방』(59.3%)·『직지방』(71.4%)·『천금방』(79.1%)·『천금월령』(58.2%)등 모두 25권이다. 이중 시대별로 보면 당대이전의 것이 4권, 송대가 6권, 금원대가 9권, 명대가 4권이다. 이를 보아도 『의방유취』는 송대와 금원대의 인용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1개의 문에만 인용된 인용서는 『권선서』(「안문」)·『금단대성』(「양성문」)·『내외상변혹론』(「비위문」)·『두진방』(「소아문」)·『보단요결』(「양성문」)·『보동비요』(「소아문」)·『보명집류요』(「상한문」)·『복수론』(「양성문」)·『비전외과』(「요각문」)·『산보』(「부인문」)·『삼원연수서』(「양성문」)·『상한론주해』(「상한문」)·『상한명리론』(「상한문」)·『상한발미론』(「상한문」)·『상한백증가』(「상한문」)·『상한심요론』(「상한문」)·『상한심요여론』(「상한심요여론」)·『상한의감』(「상한문」)·『상한지장도』(「상한문」)·『상한직격』(「상한문」)·『상한활인서』(「상한문」)·『상한활인서괄』(「상한문」)·『선전제음방』(「부인문」)·『소아약증』(「소아문」)·『소아약증직결』(「소아문」)·『수진비결』(「양성문」)·『오장론』(「오장문」)·『오장육부도』(「오장문」)·『용수보살』(「안문」)·『음증략례』(「상한문」)·『의첩원용』(「상한문」)·『증주화제』(「총론」)·『직지소아방』(「소아문」)·『진씨소아두진방』(「소아문」)·『창과정의』(「나력문」)·『창진방』(「소아문」)·『추노방』(「부인문」)·『추노선방』(「소아문」)·『태산구급방』(「부인문」)·『통진자상한팔요』(「상한문」)·『통진자상한팔요시』(「상한문」)등 41권이다. 이들은 『의방유취』의 「상한문」·「양성문」·「부인문」·「소아문」에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각각 1개의 문에만 인용된 인용서는 문에 관련된 전문서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방유취』는 23권의 인용서를 91개 분류(문)의 중심으로 삼고 또한 각각에 맞는 전문서적을 분류에 맞추어서 구성함으로써 각 분류의 전문성을 높였음을 알 수 있다.

5.3. 『醫方類聚』 「凡例」의 분류에 따른 인용회수

『의방유취』 법례¹⁵⁷⁾는 이론·방약·식치·금기·침구·도인의 분류를 가진다고 하였다. 각 분류에서의 인용서별 비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용회수에서 나타나는 인용서의 특징을 간단히 조사하였다. 각 인용빈도의 비율은 91문과 이 중 「부인문」의 26개, 「소아문」의 51개의 세항목의 합인 166회를 100%로 계산한 것이다.

이론류에서 30%이상의 인용빈도를 차지하는 인용서는 『소씨병원』(107회, 64.5%)·『삼인방』(56회, 33.7%)·『직지방』(61회, 36.7%)·『엄씨제생방』(51회, 30.7%)·치병백법(50회, 30.1%)·『영류검방』(62회, 37.3%)·『십형삼료』(57회, 34.3%)등이다.

방약류에서 30%이상의 인용빈도를 차지하는 인용서는 『주후방』(93회, 56%)·『성혜방』(137회, 82.5%)·『삼인방』(79회, 47.6%)·『성제총록』(55회, 33.1%)·『시재의방』(88회, 53%)·『직지방』(67회, 40.4%)·『엄씨제생방』(61회, 36.7%)·『대전본초』(103회, 62%)·『의방대성』(85회, 51%)·『발수방』(55회, 47.6%)·『의림방』(55회, 33.1%)·『담헌방』(81회, 48.8%)·『금궤구현』(65회, 42.2%)·『위생보감』(70회, 42.1%)·『득효방』(123회, 74.1%)·『영류검방』(88회, 53%)·『담료방』(69회, 41.6%)·『어약원방』(58회, 34.9%)·『신효명방』(51회, 30.7%)·『수역신방』(69회, 41.6%)·『수진방』(63회, 37.9%)·『위생이간방』(118회, 71.1%)·『육기미의』(63회, 37.9%)등이다.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인용서는 『성혜방』이고 저술시기로는 금원대의 인용서가 가장 많았다.

식치류에 인용된 인용서는 모두 19권인데 이 중 『식의심감』과 『성혜방』이 22회로 가장 높은 빈도이고 그 다음으로 『수친양노서』가 19회로서, 이들 3권의 인용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기류에 인용된 인용서는 모두 27권인데, 이 중 『소씨병원』이 33회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천금방』이 10회인데, 이들 2권의 인용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들은 또한 당대이전의 서적들이다. 침구류에 인용된 인용서는 모두 29권인데, 이 중 『천금방』이 35회, 『신교만전방』이 15회, 『득효방』 18회, 『주후방』 14회로서 이들 4권의 인용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인류에 인용된 인용서는 10권인데 43회의 『소씨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용회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인용서를 이론위주·방약위주의 인용서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인용서의 이론류와 방약류의 인용회수를 합친 회수를 기준으로 이론류와 방약류의 인용비율이 50%이상 차이를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이론과 방약이 비슷한 경우를 조사하는데는 앞의 비율이 10%이내의 차이가 나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론과 방약류를 비교하여 이론에만 인용된 경우는 『오장론』·『통진자상한팔요시』·『상한백증가』·『상한발머론』·『진씨소아두진방』·『상한백문가』·『상한류서』·『단병제강』·『상한의감』·『상한명리론』·『금단대성』·『보단요결』·『복수론』등 12권이다. 또 방약류에만 인용된 경우는 『식의심감』·『조도방』·『통진자상한팔요』·『사시찬요』·『위생십전방』·『금구선방』·『어의촬요』·『삼법육문』·『서죽당방』·『태산구금방』·『상한심요론』·『보동비요』·『담헌방』·『보명집유료』·『의첩원용』·『음증략례』·『어약원방』·『신효명방』·『수진방』·『선전제음방』·『간기방』·『거가필용』·『권선서』·『두진방』·『비전외과』·『상한심요여론』·『상한활인서팔』·『수월노반경후록』·『신효방』·『연수서』·『운화현추』·『이간방』·『증주화제』·『창과정의』·『천옥집』·『추노방』·『추노선방』·『필용전서』·『필용전서』·『해

157)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1分冊)「凡例」, [5].

상선방』등 모두 40권이다.

또한 이론위주로 인용된 인용서는 『소씨병원』(98.2%)·『치법잡론』(91.1%)·『치병백법』(75.4%)·『유문사친』(90%)·『십형삼료』(86.8%)의 4권이다. 위의 이론류만 나온 인용서 10권하고 합하면 모두 14권이다. 방약위주의 인용서는 『금궤방』(67.4%)·『주후방』(97.8%)·『천금월령』(96%)·『천금익방』(89.4%)·『리상속단방』(60%)·『성혜방』(70.2%)·『소아약증』(71.4%)·『외과정요』(50%)·『왕씨이간방』(50%)·『대전본초』(98%)·『수친양노서』(80%)·『선명론』(50.2%)·『발수방』(80.8%)·『의림방』(71.4%)·『경험비방』(80.6%)·『왕씨집험방』(88.2%)·『산거사요』(95.8%)·『사림광기』(61.2%)·『비전외과방』(75%)·『외과집험방』(50%)·『외과정의』(56.6%)·『금궤구현』(88.4%)·『위생보감』(62.6%)·『득효방』(85%)·『난실비장』(65.2%)·『수역신방』(81.4%)·『서씨태산방』(80%)·『위생이간방』(98.2%)·『신은』(50%)·『구선활인심』(75%)·『경험양방』(90%)·『남북경험방』(95.8%)·『비예백요방』(94.4%)·『쇄쇄록』(91.6%)·『시효단효방』(52.2%)·『주씨집험방』(64.4%)·『화제국방』(83.4%)등 모두 37권이다. 위의 방약류만 나온 인용서 40권과 합치면 모두 77권이거나 된다. 이를 근거로 『의방유취』의 인용서는 대부분 방서(약물치료서) 위주이고 또한 방약을 중심으로 인용하였다고 생각된다.

6. 引用書의 時代順 配列

『醫方類聚』 「凡例」¹⁵⁸⁾에 引用書를 時代順으로 배열한다고 하였기에 우선 『의방유취』에 일반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순서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저술연대를 알 수 있는 인용서를 중심으로 저술시대순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방유취』에서 인용서 배열에 오류라고 생각되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일단 저술연대가 정확히 알려진 인용서의 시대순 배열은 아래와 같다.

『금궤방』-『주후방』-『소씨병원』-『천금방』-『천금익방』-『이상속단방』-『식의심감』-『산보』-『성혜방』-『간요제증방』-『통진자상한팔요』-『남양활인서』(『무구자활인서』)-『대전본초』-『성제총록』-『소아약증직결』-『상한발미론』-『상한백증가』-『상한론주해』-『상한명리는』-『상한활인서팔』-『삼인방』-『선명론』-『상한직격』-『왕씨역간방』-『시재의방』-『화제국방』-『조도방』-『어의활요』-『삼법육문』-『신희명방』-『십형삼료』-『유문사친』-『잡기구문』-『치법잡론』-『치병백법』-『음증략예』-『어약원방』-『동원내외상변』-『비위론』-『직지방』-『난실비장』-『담료방』-『삼원연수서』-『의루원용』-『부인대전량방』-『엄씨제생방』-『진씨소아두진방』-『외과정요』-『엄씨제생속방』-『발수방』-『태산구금방』-『서죽당방』-『영류검방』-『득효방』-『위생보감』-『외과정의』-『금궤구현』-『외과집험방』-『수진방』-『옥기미의』

위의 배열에서 『유문사친』의 6종은 『유문사친』이 간행된 해를 기준으로 삼았고 또 『화제국방』은 허홍이 증보한 저술연대를 기준으로 삼아 배열하였다. 그리고 『의방유취』의 「총론」과 「제품문」의 인용서 순서를 기준으로 삼고 각각의 인용서 사이에 다른 인용서가 배열될 경우에 삽입하고 다시 다른 문과 비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방유취』인용서를 배열하였다.

『오장론』-『상한론주해』-『금궤방』-『용수보살안론』-『소씨병원』-『천금방』-『천금익방』-『식의

158)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위의 책(第1分冊) 「凡例」, [5].

심감』-『친금월령』-『해상선방』-『산보』-『성혜방』-『사시찬요』-『화제국방』-『간요제중방』-『대전본초』-『삼인방』-『위생십전방』-『신교만전방』-『조도방』-『시재의방』-『쇄쇄록』-『간이방』-『왕씨이간방』-『상한류서』-『직지방』-『증치제강』-『주씨집험방』-『엄씨제생방』-『엄씨제생속방』-『관견대전양방』-『부인대전양방』-『수월노반경후록』-『삼법육문』-『유문사친』-『잡기구문』-『치병백법』-『십형삼료』-『치법잡론』-『상한직격』-『상한의감』-『선명론』-『동원시효방』-『동원변혹』-『동원내의상변』-『난실비장』-『어약원방』-『득효방』-『왕씨이간방』-『담헌방』-『상한지장도』-『주후방』-『위생보감』-『담료방』-『성제총록』-『거가필용』-『필용전서』-『필용지서』-『발수방』-『서죽당방』-『두진방』-『왕씨집험방』-『의방대성』-『남북경험방』-『수진방』-『영류검방』-『의방집성』-『경험비방』-『천옥집』-『경험양방』-『의림방』-『연하성효방』-『수친양노서』-『시원단효방』-『오씨집험방』-『신효명방』-『사림광기』-『산거사요』-『외과집험방』-『신효방』-『외과정의』-『급구선방』-『비전외과』-『옥기미의』-『구선활인심』-『운화현추』-『수역신방』-『위생이간방』-『금궤구현』-『어의촬요』-『비예백요방』-『간기방』-『권선서』

이렇듯 『의방유취』에서 배열이 바뀐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첫번째는, 『담료방』과 『위생보감』의 배열문제이다. 『담료방』-『위생보감』으로 나온 문은 「제풍문」·「제서문」·「안」·「비」·「사지」·「심복통」·「각기」·「비위」·「구토」·「일격」·「곽관」·「적취」·「해수」·「제학」·「소갈」·「수종」·「제림」·「적백탁」·「대소변」등이고 『위생보감』-『담료방』의 순서로 된 문은 「총론」·「제서」·「상한」·「인후」·「두면」·「혈병」·「제기」·「제산」·「각기」·「부인」의 「적취」·「소아」의 「옹저」·「제열」등인데, 본고에서 알아본 저술연대순으로는 전자가 맞다. 두번째는 총서 『유문사친』에 흡수된 6종의 의서의 배열이다. 우선 『삼법육문』이 가장 먼저 나오고 『신효명방』이 멀리 떨어져서 배열되어 있고 나머지 5종의 배열이 문제가 된다. 첫번째는 『유문사친』-『잡기구문』-『치병백법』-『십형삼료』-『치법잡론』으로 된 문은 「총론」·「제풍문」등이고 두번째는 『유문사친』-『치병백법』-『십형삼료』-『잡기구문』-『치법잡론』은 「상한」·「부인」의 「조경」·「통치」·「소아」의 「안」등이다. 그리고 「설사」·「제창」은 또 「치병백법」-『치법잡론』-『십형삼료』으로 되어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의방유취』의 시대순 배열중 『어의촬요』-『비예백요방』-『간기방』-『권선서』의 배열이다. 왜냐하면 『어의촬요』는 1226년에 최중준이 저술한 우리나라 의서로서, 이 책의 배열은 앞의 중국 인용서의 시대순 배열과 맞지 않는다. 또한 이후의 인용서는 중국문헌자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3종의 의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의서로 의심된다.

두 가지의 인용서 배열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특히 『상한론주해』·『화제국방』·『주후방』·『성제총록』·『어의촬요』는 저술연대에 맞지 않는 배열이다. 그리고 총서 『유문사친』에 흡수되어 간행된 6종의 인용서도 또한 저술연대를 다르게 보았으며, 『신효명방』은 전혀 다른 연대에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시대순 배열에 혼동이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첫번째는, 『의방유취』 편찬 당시의 의학자들이 인용서의 저술연대를 어떠한 기준- 각 인용서의 完成年代, 韓國에 輸

入된 年代, 혹 각 인용서의 版本에 따른 年代-으로 삼았는지가 분명치 않다. 두번째는 『의방유취』의 제작과정이 약 30년정도 지나면서 「凡例」에 記述한 『의방유취』편성초기의 편집형식이 제작기간이 길어지고 편집자가 바뀌면서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도 생각된다.

인용서의 정확한 시대순 배열문제는 다른 문헌자료의 명확한 고증이 선행될 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7. 맺는말

『의방유취』에 인용된 인용서는 142권이다. 『의방유취』 「引用諸書」은 153권인데, 이러한 권수, 인용서의 차이는 『의방유취』의 편찬당시에 실질적으로 편집된 인용서와 편집에 참고한 서적 사이의 혼동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방유취』에 인용된 서명은 동일한 책을 異名으로 引用하였거나, 더러는 原書名과 함께 略稱으로도 표기하였으며, 篇名을 引用書名으로, 혹은 引用書名을 篇名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著者と 書名을 같이 인용서로 표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醫方類聚』편집구성상 제목으로 표기된 引用書名은 모두 142종이고, 이중 대부분은 의서이며 약간의 도교수련서, 불교와 관련된 서적등도 있어 의서가 아닌 서적에서의 의약내용까지도 수용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의방유취』의 「범례」에서 밝힌대로 각 인용서의 일부는 시대순의 배열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의방유취』편찬 당시 의학자들이 인용서의 저술연대를 어떠한 기준- 각 인용서의 完成年代, 韓國에 輸入된 年代, 혹 각 인용서의 版本에 따른 年代 등-으로 삼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장기적인 편찬과정동안에 기존의 편집형식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최종준이 저술한 우리나라 의서인 『어의촬요』(1226년)가 앞의 중국 인용서의 시대순 배열과 맞지 않는 점과 이후의 인용서는 중국문헌자료에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어의촬요』와 함께 『비예백요방』·『간기방』·『권선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의서라고 의심된다.

91개문에 理論·方藥·食治·禁忌·鍼灸·導引으로 구성된 『의방유취』에 대해 인용회수를 조사한 결과, 총인용회수는 5,415회, 이중 이론 1,147회(21.2%), 방약 3,794회(70.1%), 식치 137회(2.5%), 금기 116회(2.1%), 침구 158회(2.9%), 도인 63회(1.2%)였다. 또한 인용서중 이론위주의 것이 24권이고 방약위주는 77권였다. 따라서 『의방유취』는 방약(약물치료요법)에 중점을 둔 의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개 문에만 인용된 인용서는 41권이고, 「상한문」·「양성문」·「부인문」·「소아문」에 인용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전문적인 분류(문)에 전문서적을 인용함으로써 각 분류의 전문성을 높인 특징이 있다.

저술시기별로 인용회수를 조사한 결과, 이론과 방약은 송대와 금원대가, 식치는 당대이전과 송대가, 금기는 당대이전, 침구는 당대이전과 금·원대가, 導引은 당대이전의 인용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송대와 금원대 인용서의 인용회수가 가장 많다. 또한 전체 142권의 인용서중 당대이전 11종·송대 34종·금원대 46종·명대 9종이다. 따라서 『의방유취』는 중국의 송대의 정부에서 편찬한 처방서를 들여와 편집원칙에 따라 분류·정리하고 아울러 금원대의 의

학 특히 금원사대가의 발전적인 학설과 실제임상을 받아들였으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명대초기의 저서들까지도 수용한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의 중국의학을 흡수하고 새롭게 정리하여 자국화하려는 의서라고 생각된다.

【색인어】 『醫方類聚』, 인용서

참고문헌

1. 金信根. 『韓醫藥書攷』. 初版3刷,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2. 盛增秀. 「從校點『醫方類聚』說起」. 『上海中醫藥雜誌』1984: (6).
3.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究堂, 1979.
4.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宅, 1963.
5. 馬繼興 著. 『中醫文獻學』. 1次印刷,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6. 張子和. 『儒門事親』. 台北: 旋風出版社, 1978.
7.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醫方類聚』(校點本). 1판1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8. 李東垣. 『內外傷辨惑論』.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745冊」, 「子部51」, 「醫家類」. 臺北國立故宮博物院所藏本. 서울: 驪江出版社, 1988.
9. 許洪 增補. 『太平惠民和劑局方』.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741冊」, 「子部47」, 「醫家類」. 臺北國立故宮博物院所藏本. 서울: 驪江出版社, 1988.
10. 王好古. 『醫壘元戎』.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745冊」, 「子部51」, 「醫家類」, 臺北國立故宮博物院所藏本. 서울: 驪江出版社, 1988.
11. 楊士瀛. 『仁齋直指方』.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744冊」, 「子部50」, 「醫家類」, 臺北國立故宮博物院所藏本. 서울: 驪江出版社, 1988.
12. 危亦林. 『世醫得效方』.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746冊」, 「子部52」, 「醫家類」, 臺北國立故宮博物院所藏本. 서울: 驪江出版社, 1988.
13. 中國中醫研究院 中國醫史文獻研究所 主編. 『中醫人物詞典』. 1次印刷,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8.
14. 蕭源 等輯. 『永樂大全醫藥集』. 1版1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5. 甄志亞 主編. 『中國醫學史』. 1版1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6. 『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 編. 『中醫大辭典』, 「醫史文獻分冊」. 1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17. 王雲凱 主編. 『中國名醫名 著名方』. 1版1次印刷,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3.
18. 張志哲 主編. 『道教文化辭典』. 1次印刷, 上海: 江蘇古籍出版社, 1994.
19. 張允亮編. 『故宮善本書目』. 李茂如·胡天福·李若鈞 編著. 『歷代史志書目 著錄醫籍匯考』. 1版1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20. 白永波·孫光榮 主編. 『中醫養生大全』. 1版 2次印刷.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21. 曾世榮 著. 『活幼口議』. 1次印刷. 北京: 中國古籍出版社, 1985.
22. 呂光榮 主編. 『中國氣功辭典』. 1版2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23. 王璆 著. 『是齋百一選方』. 1版1次印刷.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24. 華蓓苓. 「博而有統的中醫衛生學專 著『臞仙神隱』」. 『上海中醫藥雜誌』1985: (12).
25. 申舜植外. 『歷代 韓醫學文獻의 考證 I』. 서울: 韓國韓醫學研究所, 1996.
26. 雷自申·趙石麟·張文·李經緯·郭謙亨·王學禮 主編. 『孫思邈『千金方』研究』. 1版1次印刷. 西安: 陝西科學技術出版社, 1995.
27.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李茂如·胡天福·李若鈞 編著. 『歷代史志書目 著錄醫籍匯考』. 1版1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28. 王叔民·龐莎莎. 「敦煌吐魯番出土古本五臟論的考察」. 『中華醫史雜誌』1995: (1).
29. 叢春雨 主編. 『敦煌中醫藥全書』. 1版1次印刷.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30.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 2版2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31. 趙琦美. 『脈望館書目』. 李茂如·胡天福·李若鈞 編著. 『歷代史志書目 著錄醫籍匯考』. 1版1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 ABSTRACT =

A study of reference books of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Choi Hwan-Soo, OMD* Shin Soon-Shik, OMD, PhD*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醫方類聚』) is a medical book which classifies and edits the existing books. First of all, it is not until finishing the study of reference books that we can study the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in earnest. We did not take traditional non-systematic methods to study the reference books of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systematically. We investigated the title of 'reference book's name' as a reference book and did not investigate re-reference books.

The number of reference books are one hundred forty-two volumes. Most of the reference books are medical books; some books are about Taoism and Buddhism. The title of the reference books are given a name by various methods. But these methods have a lot of problems. First, the same title book misapply an alias, the original text name and an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and Literatures,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KIOM)

abbreviated name. Second, a chapter name misapplies reference books. Third, reference books misapplies a chapter name. Forth, the writer and book name misapplies reference books and so on.

From quotation collection about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s characteristic point follows below in three kinds. First, it emphasizes medical therapy. Second, most of *Song*(宋) period, *Geum·Yuan*(金·元) period of China reference books take place in here. During this period it had accepted studying theory from clinical accumulation and the result of re-clinical studies reception based on theory research, and also had accepted *Geum·Yuan*'s expansive theory. Third, by adding technical books of a professional assortment, it has raised its profession of division.

【Key words】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reference books